

칼럼

김 운 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4·7재·보선은 정부·여당의 오만과 위선을 심판했다

4월 7일 실시한 서울시장과 부산 시장 등 재·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의 참패였다. 변명의 여지없이 졌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루어지는 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서 여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가 되기 쉬웠다.

이번에는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심의 대서운 회초리를 맞은 정도가 아니라, 민심의 원자폭탄을 맞은 상태다.

민심의 웅단폭격을 맞아서 초토화가 된 형세다. 참패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쌓이고 쌓였다가 마침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에서 21명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민

주당)이고, 49명 국회의원에서 41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109명 서울시의회 시의원에서 101명이 민주당이다.

가히 민주당 천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57.5%대 39.2%, 약 18% 표차로, 부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약 62.67%대 34.42%, 약 28% 표차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는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58%대 32%로 부정 여론이 앞섰다.

서울시 25개 구(區)에서 모두 오 후보가 이겼다. 서울시 425개 동(洞)에서 구로구 구로3동, 강서구 화곡8동, 마포구 성산1동 등 5개 동에서 지고 420개 동에서 오 후보가

압승했다. 박영선 후보가 4선 국회의원을 했던 구로구에서도 오 후보는 53%로 43%를 얻은 박 후보를 이겼다. 1년 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고민정 후보에게 패배했던 광진구에서도 오 후보가 56%로 39%를 얻은 박 후보를 17% 큰 표차로 이겼다.

철옹성 같던 민주당 천하를 완전히 뒤엎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천하를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총칼로도 할 수 없고, 천하 없는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인 투표의 힘으로만 가능한 선거 혁명이다.

4·7재·보선 하루 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오래전부터 예측했다.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하루하루

2%씩 따박따박 상승세를 탔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 캠페이션 “지지를 격차가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는 주장이 나왔고,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다.

다른 때 같으면 후보자의 거짓말이나 말바꾸기는 당락(當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닉슨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되고, 부인(거짓말)하다가 닉슨이 시뮬레이션 워터게이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상대 정당에 대한 도청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내국동 농지에 간 것을 부인해도 거짓말은 되어도 범죄는 아니다.

평소 정치인들의 많은 거짓말

과 말바꾸기에 국민들은 식상하고 면적이 되어 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관련 발언이 혼선을 준 것은 사실이나, 조국 사건과 윤미향 사건,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문재인 정부 4년 간의 위선과 내로남불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 직전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주도하면서 부동산 임차 5% 인상률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위선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분노가 폭발했다.

민주당이 선거 원인에 책임이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서까지 후보를 낸 것부터 잘못이라고 민주당 81명 조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대명사로 본 것을 반성하고, 진심이 없는 말, 행동 없는 말, 내로남불을 반성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즈(NYT)까지 민주당의 선거 패인은 ‘naeronambul’(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설명까지 했다.

1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은

41.4%를 득표하여 8.5% 표차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고 상대 후보 득표는 죄다 사표(死票)가 되는 소선거구제이기엔 전체 의석 300석 중 174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2016년 4·13 20대 총선, 2017년 5·9 19대 대선, 2018년 6·13 지방선거, 2020년 4·15 21대 총선, 4연패(連敗)의 늪에서 천행(天幸)으로 빠져나온 국민의힘 조선의원 56명은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잘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성명을 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승자는 생태당이라는 풍자가 먹히고 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 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수가제주 역가복주 水可載舟 亦可覆舟, 「후한서」의 황보규전皇甫規傳).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군주민수 君舟民水)이라는 공자(孔子)의 말(공자가어 孔子家語)은 현대에도 타당하다. 거짓과 위선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오만(傲慢)하면 망한다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화하는 사기 범죄, 앞서 진화(鎭火)해야 한다

최근 사기 범죄는 시대나 이슈의 흐름에 따라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전 보이스피싱을 보면 종종 어눌한 말투로 듣는 이로 하여금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생각날 수 있게 하였으며,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를 흉내 낸 이후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가 있다.

광고성 진화, 보이스피싱 전화, 저금리 대출 문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또 다시 진화하고 있는 사기 범죄는 뭐가 있을까?

얼마전 '딥페이크'의 순기능과 악기능을 설명한 방송을 접하게 됐다.

'딥페이크'는 고도의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가학습을 통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의 좋은 예로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등의 사진을 복원시켜 만들어낸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범죄에 이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런 유용한 '딥페이크' 사람의 얼굴을 복원, 합성, 변형시켜 불법 영상에 사용되거나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 어디선가 노출된 자

신의 얼굴이 성 착취물, 불법 영상 등에 합성되어 돌아다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얼굴을 합성해 찍은 영상을 문자로 보내며 "급한 일이 있으니 돈 좀 보내줘"라며 가족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겪어본 사기 범죄와는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방심하면 내가 영상 속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수법을 듣거나

접하면 주변에 가장 먼저 알리지.

특히, 고령자의 경우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핸드폰에 '후후' 등 스피커 진화번호를 차단해주는 어플을 설치해 놓자.

또한 '경찰청'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등 새로운 사기 수법이나 사기 범죄 관련 이슈,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를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도처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수법, 정보, 예방법 등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범죄를 진화(鎭火)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박은유/순천경찰서경무계경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정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